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5(통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으신 하나님, 매일 아침 성실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에 대한 염려 속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매일 매일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이티의 수많은 이재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10만의 고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3:22 인도자

♠ 교 독 문 122. 주현절(2)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경선 집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66(통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함께

성경봉독 I. 수10:7-15 임해나 학생

..... II. 잠19:1-4 이영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이성운전도사

..... II. 천천히 그러나 진실하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연 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전수빈 김서영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올바른 곳을 바라보며 늦더라도 꾸준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바른 가치와 의미보다는 순간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릇된 열심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조금 늦더라도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을 탓하던 습관을 버리고 좀더 성실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별난 복음, 요한복음 3
	기도 : 오현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최다미 학생	최명하 학생
	김재흥 목사	김인걸 장로	하현철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최현옥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왜 이 아이를 죽게 두셨나요?

... 어느 날, 오전에 오기로 했던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이동 진료소가 파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진료소가 끝난 후 직원들과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엄마가 아이를 업고 아침 일찍 보건소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단다. 집 마당 안에는 금방 만든 듯한 네모난 흙무덤 위에 조그만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젊은 엄마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멍한 표정으로 거의 낮이 나가 있었다. 2년 전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고 몇 달 전에는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이가 아플 때 마을 사람들은 저주가 내린 게 분명하다며 주술사에게 액땀 의식을 받으라고 강권했지만, 이 엄마는 남편이 죽은 직후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막내의 목숨은 하느님께 맡기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기어이 아기를 잃었다며 그제야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슬픔으로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자니 위로의 기도 대신 불경한 원망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왜 그러셨어요, 하느님. 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인 이 엄마의 아이를 왜 죽게 내버려두셨나요?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며 마음껏 조롱하게 만드셨나요? 10시간만 빨리 우리를 만났어도 살 수 있었다는데, 이 아기의 죽음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영광이 되는 건가요? 엄마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느님!’

이렇게 원망하다 보니, 예전에 겪은 이와 비슷했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케냐 북부 수단외 국경 지대, 영양 급식 치료소에 한 유목민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들쳐 업고 들어왔다. “우리 아이가 힘이 없나 봐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잠만 자고 있네요.” 내려놓은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는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 종일 사막을 가로질러 왔던 것이다. 아이의 몸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깡말라 있었다. 순간, 내 입에서 이

런 원망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느님은 아이의 이 깡마른 몸이 안 보이시나요? 이 아인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했겠죠? 이 아이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신가요? 이 아이는 무슨 죽을 죄를 지은건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죄인가요, 하느님?’

인도네시아 아체의 쓰나미 현장에서 만난 엄마 잃은 아이들은 마음이 아파 차마 똑바로 볼 수도 없었다. 아동 보호소에 모여 앉아 “아가야, 내가 없어서 얼마나 슬프니? 그러나 아가야, 나도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단다”라는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 생각을 하며 이렇게 울다가도 조금만 웃긴 이야기를 들으면 눈가에 눈물을 매단 채 웃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대여섯 살도 되지 않은 이런 꼬마가 집도 절도 없이, 엄마 아빠도 없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할지 뻔한 일이었다.

지난 세월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쿡쿡 찌시면서 숨이 딱 막히더니 오늘 아이를 잃은 남부 수단의 엄마처럼 내 눈에서도 붉은 눈물이 푹 떨어졌다. 아이 엄마 손을 더욱 꼭 잡으니까 오히려 그 엄마가 위로하듯 내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의 이 슬픔을 함께하라고 주님이 당신들을 보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원망해도 모자랄 사람이 도리어 나를 위로해주다니. 위로하려 간 사람이 위로를 받다니. 아, 그래. 난 이런 목소리를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은 이란 현장에서 남편은 물론 집과 친척 등 모든 것을 잃은 채 울고 있던 한 엄마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다. 다섯 살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집 딸이 다가와서 손을 꼭 잡더니, 그 크고 예쁜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마 리쉬 무슈킬라(괜찮아요)”라고 했다. 그 때 자기 엄마도 울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을까 의아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알 것 같다. 그 아이는 꼬마를 가장한 천사였을 것이다.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 내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려던 것이리라.

우리는 다만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뿐이다. 가끔은 고통과 원망과 회의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비아,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

그대 생각

고정희

너인가 하면 지나는 바람이어라
너인가 하면 열사흘 달빛이어라
너인가 하면 흐르는 강물이어라
너인가 하면 흩어지는 구름이어라
너인가 하면 적막강산 안개비여라
너인가 하면 끝모를 울음이어라
너인가 하면 내가 내 살 찢는
아픔이어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조헌권 조은나 장원호 박성희 권미숙 손성현 김용진 박효선 강인식
김정숙 김용길 최영혜 오자영 임주빈 최현옥 무명

월정헌금:

나승철 김용태 박정숙 김정섭 이인웅 김지현 김지은 정원석 김현영
무명

감사헌금:

김현영 조문규 진정숙 박창운 허정윤 김주경 문복순 이유선 김미희
차혜심 전성오 조순덕 김도원 노혜민 송임희 윤정덕 구성실 이나환
방문성 박혜경 김수진 송동준 김진경곽권희 무명9

생일감사헌금

김정섭 박시내 허호범 박성실 최희영 옥귀희 박범희 홍순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선교회장님들은 모임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여선교회** : 중구용산지방 2010년 제 1회 계삭회가 26일(화) 오전 10시 한마음교회에서 열립니다.
4. **임원교육** :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원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아동부 수련회** :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30일(토), 31일(주) 양일 간 송추 유스호스텔에서 열립니다.
6. **교사모집** :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학교사무실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아이티 지원** :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아이티의 이재민을 위해서 교회에서 1,500만원을 세계교회협의회(GCC)의 긴급지원 국제기구와 카리브해 교회협의회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8. **신앙실천** :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며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4,5남선교회)

* 설거지 봉사 : 장재영 김재영 유지은 (다음 주 : 이우엘 이나단 이준하)

새교우 소개		
김정애 (7여)	정재정 (8여)	박영진 (청년부)
이한라 (청년부)	서근명 (3남)	주은미 (6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